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보와 출생	1장	
유년시절	2장	
(세례요한)세례	3장	
사역준비/시작	4장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사역

산상수훈 (천국의 선언서)	5장	① 가르침
	6장	
	7장	
치유와 이적	8장	
	9장	
제자도(천국의 사명)	10장	② 가르침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	11장	
	12장	
천국의 비유들	13장	③ 가르침
갈릴리 사역 후반	14장	
종교지도자들과 대결	15장	

예수님의 수난/십자가/부활

미래에 대한 전조	16장	베드로의 고백
(전환점)수난예고 ①②	17장	변화산
천국의 삶(관계)	18장	④ 가르침
논쟁, 심판들	19장	
수난예고 ③	20장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21장	예루살렘 입성
심판에 관한 비유, 논쟁들	22장	
죽은 종교에 대한 심판	23장	⑤-1 가르침
예루살렘과 역사의 종말	24장	⑤-2 가르침
	25장	
유월절, 최후의 만찬, 배신	26장	겟세마네
예수의 수난과 죽음	27장	십자가
빈 무덤, 대위임 명령	28장	부활

마태
복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0 사순절 드라마바이블 0303 5번째 I

마태복음 19-22 말씀

* 마 21: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적대자 ① 성전 지도자들 : 대제사장, 사두개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 한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전문가였던 바리새인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존재 의미와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후(21:12)

대제사장, 사두개인과의 갈등이 전면에 드러난 것은

그들의 권력 기반인 '성전'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도시였습니다.

성전과 그에 속한 광장은 크기가 14만 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42,350평).

성전의 규모와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2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정도였습니다. 성전은 많은 재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된 금이 풀렸을 때 금값이 반으로 떨어졌을 정도였습니다. 성전 휘장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300명의 제사장이 필요했고, 저녁 성전 문을 닫는 일에만 200명의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평소 25,000명이던 성의 인구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순례 절기에는 18만 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성전은 희생제의를 드리는 하나의 거대한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환전상들이 순례자들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고, 날마다 바치는 기본 제물에 만 연간 1200마리의 동물들이 소비되었습니다.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 감사제물 6종류가 드려졌고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가 성전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성전은 제의, 경제, 행정 세 가지 기능 모두를 담당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신앙과 국가조직 양면에서 상징적인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흠 없는 아론 가문 직계였고, 산헤드린 의장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산헤드린: 종교, 민사 문제에 완전한 법적, 행정적 권위를 지닌 조직. 이 의회가 내린 결정은 유대 경계를 넘어서까지 존중되었으며 의회는 수석 제사장, 율법학자들과 귀족들로 구성되었다. 임기의 제한은 없다.) 로마 총독 통치 하에 대제사장의 권력은 매우 커져서 제의 뿐 아니라 로마인들과 정치 교섭을 하는 일에 유대의 핵심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후 6년-67년 사이 배출된 18명의 대제사장 중 16명이 부유하고 유력한 다섯 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명칭은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던 ‘사독의 후손’으로부터 온 명칭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후손으로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권력에 일부 편승하였습니다. 그들은 최고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영향력 있는 예루살렘 가문 출신으로 ‘상류계층’에 속했습니다. 성전 관리 일체를 맡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고 유대인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기록된 율법에 엄격함을 유지했지만, 종교 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헬라 세력, 로마 총독, 헤롯 왕 등 현실과 타협합니다. 육체의 부활, 죽음 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으며 오직 모세 오경의 권위만 받아들였습니다.

성전정화 사건은 대제사장과 성전 조직을 일체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희생 제사를 중단시키고 성전 시스템 전부를 거부한 것입니다. 배움과 권력, 시스템과 권위, 명예와 부의 중심에 있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21:23)

그들의 삶과 사역의 결은 결코 예수님과 함께일 수 없었습니다.



*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도널드 크레이빌, 복있는 사람